

텍사스 대정전



눈에 덮인 텍사스 주청사(Texas State Capitol), 미국 내 주청사 건물 중 가장 크다

지난 2월, 미국에서 따뜻한 지역으로 대표되는 텍사스가 미국에서 가장 추운 알래스카보다 더 추운 기온이 -20°C 미만까지 기록되었다. 기록적인 폭설과 한파로 인해 텍사스 주 전역에 걸쳐 400만 이상 가구와 사무실이 정전되었으며 수일간 지속된 정전사태로 인해 주민 40명 이상이 숨졌다.

텍사스는 풍부한 석유·가스 보유로부터 나오는 자신감과 뉴멕시코, 오클라호마 등 지리적으로 인접한 주가 있지만 연방정부의 각종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전력망을 텍사스 전력연결망(Texas Interconnection)으로 독립시켰다. 또한, 텍사스의 발전설비 구성은 가스발전과 풍력이 75%를 차지하는 등 재생에너지 비중이 큰 상황인데, 이런 독립된 전력망과 가스발전 및 풍력에 의존적인 발전설비 구성이 이번 정전 사태의 주요한 원인으로 꼽힌다.

고립된 계통,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 낮은 전력가격 유지, 해외 의존도가 높은 천연자원 등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현안이 재생에너지 중심 전력산업구조개편을 추진하는데 어떤 걸림돌이 있는지 이번 사태를 통해 여실히 보여줬다.

이번 텍사스 대정전 사태는 남의 나라 이야기로만 받아드리기에는 우리나라와 텍사스의 유사점이 적지 않다. 이번 사태는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력산업 구조를 구성하는 나라에게 필연적인 예고편이 될 수 있다. **KIIF**